

리뷰: 이타주의방정식

이안맥케이

August 15, 2024

크로포트킨 (Kropotkin) 을논하는진화론과이타주의에관한책에대한리뷰. 안타깝게도, 보여진대로, 크로포트킨의아이디어에대한설명은결함이있어서” 상호부조 ” 와과학에대한그의기여가모두가려져있습니다.

리뷰: 이타주의방정식

리앨런듀가킨 (Lee Alan Dugatkin), 『이타주의방정식: 선의기원을찾는 7 명의과학자』 (프린스턴: 프린스턴대학교출판부, 2006)

찰스다윈의 『종의기원』 (1859) 이래로동물과인간의삶의다양한측면에대한설명이논의되어왔습니다. 즉, 협력, 이타주의, 윤리입니다. 다윈의걸작에서가장두드러진이미지는개별경쟁이었고, 이로인해이모든것이설명하기어려웠습니다. 다윈자신은 『인간의유래』 (1871) 에서이문제를논의했지만, 별로효과가없었습니다.

다윈의원칙을지지하는영국의토마스헨리헉슬리 (Thomas Henry Huxley) 는 1888 년에자연을’붉은이빨과발톱 ’으로묘사한기원에대한개인주의적관점에근거하여진화와윤리가관련이없다는개념 (실제로는반대개념) 을설명했습니다. 잘읽는무정부주의자라면알겠지만, 이글은크로포트킨이나중에헉슬리의주장을효과적으로반박한 『상호부조: 진화의요인』 (1902) 이된글을쓰도록영감을주었습니다. 그이후크로포트킨의이름은동물협력에관한책과기사에서때때로언급되지만, 상호부조와윤리에관한그의선구적인연구를감안할때이러한인정부족은실망스러우면서도, 상호부조와그의무정부주의가종종풍자되는현실을고려하면놀랄일은아닙니다.

리앨런듀가킨의 『The Altruism Equation』 은이런종류의연구의한예입니다. 이책은크로포트킨, 워더클라이드앨리 (Warder Clyde Allee), 윌리엄데이비드해밀턴 (William David Hamilton) (책제목의 ” 이타주의방정식 ” 을만들어냄) 을포함하여 ” 이타주의 ” 에대해글을쓴 7 명의과학자의삶과업적을논의을다룬후이작업이만들어낸후속과학발전에대해서도자세히서술하며, 이타주의와협동에대한최근연구들을훌륭하게요약합니다. 진화생물학자이자동물행동학자인듀가킨은크로포트킨의아이디어와그것이어떻게받아들여졌는지대한좋은설명을제공할수있는좋은위치에있지만슬프게도그렇지않습니다. 이책은잘쓰여지고매력적이지만근본적으로결함이있습니다.)

결함은세가지로요약할수있습니다. 첫째, 협력에대해의심스러운가정을합니다 (최소한일부과학적관점을반영하는데그치지만, 전체를아우르지는않습니다). 둘째, 듀가킨이살고있는사회의전제를전혀문제삼지않는다는점에서, 이는말그대로최악의의미에서비정치적입니다. 셋째, 크로포트킨의주장을오해하고있습니다. 예상했던대로이세가지문제는서로연관되어있습니다.

세번째결함이가장심각한데, 듀가킨주장의근본문제는상호부조 (협동) 를이타주의와동일시하는데있습니다. 이는크로포트킨이결코취한입장이아니지만, 독자는이에대해알지못합니다. 실제로, 크로포트킨은자신의저술에서 ” 이타주의 ” 라는용어를거의사용하지않았으며, 『상호부조』에서도예외는아니었습니다. 그는 ” 사랑 ” (유사한개념으로볼수있으나) 을언급하긴했지만, 상호부조가그것과관련이있다는개념을기각하기위해서일뿐입니다. 그가반복해서강조한바와같이, 상호부조는생존을위한투쟁의산물이었습니다. 또한, 책의부제부터그는상호부조가 ” 진화의요인 ” 입을강조하며 ” 이기적인 ” 행동이나상호투쟁의존재를결코부인하지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의인간역사에대한서술은계급투쟁에반영되듯이협동적경향과경쟁적경향사이의갈등으로특징지어집니다.

듀가킨이그린그림은, 의도적이든아니든, 크로포트킨자신의입장과주장에크게어긋납니다. 우리는크로포트킨이 ” 자연의매순간이타주의를본다 ” (13) 는사실을접하게되며, 그가크로포트킨이 ” 러시아학파 ” 에서차지하는위치와동물세계에서 ” 상호부조 ” 의인정을올바르게지적함에도불구하고 ” 이타주의와협력 ” 을흔동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습니다 (23). 이는그가 ” 크로포트킨의 ” 상호부조 ” 는우리가지금이타주의라고부르는것을모두포괄하는표현이었다 ” 고주장할때 (41) 더욱분명해집니다. 또한, 그가크로포트킨에게 ” 동물세계에서는친절과이타주의가지배적이었다 ” 고주장할때, 그주장은지나치게왜곡되어보입니다 (32).

실제로크로포트킨은동물세계 (인간포함) 가투쟁의세계라는사실을잘알고있었으며듀가킨이그에게부여한개념을명확히거부했습니다:

” 그러나헉슬리의자연관은자연에서인간에의해파괴된사랑과평화, 조화를보았던루소의반대 견해만큼이나과학적연역으로받아들여질수있는주장이거의없다는점을즉시지적할수있다. 사

실… 동물사회에 대한 첫 번째 관찰은… 자연주의자가 동물의 삶에서 사회 생활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수 밖에 없고, 자연에서도 살장만을 보는 것을 막을 수 밖에 없다. 마치도 살장이 자연에서 조화와 평화만을 보는 것을 막을 수 있듯이 말이다. 루소는 부리와 발톱 싸움을 생각에서 배제하는 오류를 범했고, 헉슬리는 정반대의 오류를 범했다. 하지만 루소의 낙관주의나 헉슬리의 비관주의 모두 자연에 대한 공정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상호부조 (-협동-) 는 그것을 실행하는 이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사랑도 아니고, (적절한 의미로 이해되는) 동정심도 늑대의 공격에 맞서 기 위해 반추동물이나 말 무리가 고리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늑대가 사냥을 위해 무리를 이루게 하는 것도 사랑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개인적 동정심보다 훨씬 포괄적인 감정이다. 이 본능은 극히 오랜 진화의 과정 속에서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서서히 발달해 왔으며,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상호부조와 지원의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힘과 사회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일깨워주었다.”

그는 항상 협력과 도덕성을 구별하는데 매우 신중했습니다. 상호부조가 도덕성이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으므로 두 개념은 관련이 있지만, 결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회 속 생활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교성은 육체적 투쟁의 한계를 만들어내어, 보다 고차원적인 도덕적 감정이 발전할 여지를 남깁니다… 연민은 사회 생활의 필연적인 산물이지만, 이는 또한 일반적인 지성과 감성의 상당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더 높은 도덕적 감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며, 차례로 추가 진화의 강력한 동인이 됩니다.”

도덕성 측면에 관해서 그는 『상호부조』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명확히 배제했습니다:

” 하지만 사회가 인류에게 기반을 둔 것은 사랑도 아니고 동정심도 아니다. 그것은 양심이다. 본능의 단계에 있을 뿐이더라도 인간의 연대에 대한 양심입니다. 그것은 상호부조의 실천에서 각 사람이 빌린 힘에 대한 무의식적인 인식이다. 모든 사람의 행복이 서로 밀접하게 의존한다는 인식, 그리고 개인이다른 모든 개인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와 동등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정의감 또는 형평성에 대한 감각이다. 이 광범위하고 필수적인 토대 위에서 더욱 고차원적인 도덕 감정이 발전한다. 하지만 이 주제는 본작업의 범위를 벗어난다.”

상호부조는 대부분의 동물에 의해 실천되었고, 그것이 만들어낸 사회적 생활은 공평성이나 정의 (어느 정도)의 감각을 만들어 냈습니다.¹ 협력과 이타주의, 선함과 이타주의를 혼합함으로써 듀가킨은 크로포트킨의 실제 입장장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과학자들 사이의 현대 논쟁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는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협력적이며 이타적인 행위를 “현대 진화 생물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그 행위를 수행하는 개체에게는 비용이 발생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크로포트킨의 견해와는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8) 그러나 듀가킨은 각주에서 “이타주의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있다”고 인정하며, 게임 이론에서는 “협력과 이타주의”를 “행위자에게 비용이 들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으로 정의하는 반면, 다른 맥락에서는 협력을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측면에서 엄격하게 정의하여, 협력자의 보상에는 비용이 아니라 이익이 수반된다”고 설명합니다.(156-7)

크로포트킨은 그러한 잘못된 가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협동 (상호부조) 이종과 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종은 개별 생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부조』에서 그는 두 번째 정의를 분명히, 그리고 당연하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 상호부조는 상호 투쟁 만큼이나 동물의 삶의 법칙이지만, 진화의 요소로서 그것은 아마도 훨씬 더 큰 중요성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종의 유지와 추가 발전을 보장하는 습관과 특성의 발달을 촉진하고, 개인의 복지와 삶의 즐거움을 최대로 높이며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¹ 도덕성에 대한 크로포트킨의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narchist Morality”, Black Flag Anarchist Review Vol. 4 No. 1 (Spring 2024); Ethics: Origin and Development (Montreal: Black Rose, 1992).

듀가킨이 왜 첫 번째 정의를 채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으며, 그 와크로포트 킨의 정의 차이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결정은 듀가킨의 문화적·계급적 관점을 반영한 정치적 선택이었는데, 그가 이를 의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는 그가 “시베리아에서 크로포트 킨은 그 지역의 동물과 농민 모두에게서 이타주의와 협동처럼 보이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동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연합합니다.”(26)라고 말할 때도 드러납니다. 왜 ‘보이는’ 것일까요? 늑대 무리가 함께 사냥하고 사냥감을 나누는 것은 명백한 협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리 동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도 협동입니다. 생존(더 나아가 번영)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을 ‘비용’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소 이념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늑대가 무리 생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무엇일까요? 혼자 사냥했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음식을 나누는 것일까요? 이것이 개별 동물에게 “비용”이라는 것은 확실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달한 문화적 가정을 반영하는 것인가요?

따라서 크로포트 킨이 “혈연 관계가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 이타주의의 보루로서 자연을 단호하게 방어” 한 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닙니다.(13) 그는 자연이 어떻게 협력과 사회적 삶의 보루였는지에 대한 잘 문서화된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크로포트 킨은 자신의 작업을 다원의 작업과 연결하려고 애썼으며, 협력은 개인과 그 자손의 생존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자연 선택에 의해 선호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듀가킨은 크로포트 킨이 다윈이 그의 『인간의 유래』(1871)에서 제시한 견해를 반복하고 있다는 어색한 사실을 훑어보며, 그 결과 자신이 혁슬리보다 더 나은 다원주의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점이 『상호부조』에서 언급되었던 점을 고려하면—실제로 다윈이 인용되었습니다(“가장 동조적인 인구 성원이 가장 많이 포함된 공동체가 가장 잘 번성하고 가장 많은 자손을 키울 것이다”[다윈] 가썼다)—실제로 이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크로포트 킨이 “혈연 관계가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 이타주의의 보루로서 자연을 단호하게 방어” 한 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닙니다.(13) 그는 자연이 협력과 사회적 삶의 보루였음을 잘 문서화하여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크로포트 킨은 자신의 주장을 다원의 이론과 연결시키기 위해 애썼는데, 이는 협력이 개인과 그 자손의 생존을 보장하여 자연 선택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듀가킨은 크로포트 킨이다원이 『인간의 유래』(1871)에서 제시한 견해를 반복하고 있다는 어색한 사실을 간과하며, 그 결과 자신이 혁슬리보다 더 나은 다원주의자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점이 『상호부조』에서 언급되었으며—실제로 『종의 기원』에서 다윈의 말을 인용(“[다윈은] ‘가장 동조적인 인구 성원이 가장 많이 포함된 공동체가 가장 잘 번성하고 가장 많은 자손을 키울 것이다’라고 썼다”)—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혁슬리와 크로포트 킨을 다루는 “다윈의 불복대 진화의 왕자” 장에서 무시됩니다. 그 장에서 듀가킨은 혁슬리가 “도덕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동물 세계는 검투사의 쇼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라며, “가족이라는 한정된 관계를 넘어, 각자가 모든 이에 맞서 싸우는 흡스적 전쟁이 정상적인 존재 상태이다”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 크로포트 킨이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12) 크로포트 킨은 이를 “끔찍한 기사”(13)로 여겼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 『상호부조』가 된 글들을 썼습니다.

듀가킨은 혁슬리의 입장에 분명히 공감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판단할 만한 “그런 증거를 독자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국가적 선택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등등하게, 아니 더 중요하게도, 자신의 삶의 경험과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 토마스 맬서스(Thomas Malthus)의 연구에 근거해 결론에도 달한 것 같다”는 점을 인정합니다.(18) 후반부에서 듀가킨은 “동물 싸움이 치명적인 전술을 수반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즉, 동물은 생식성 공률을 높일 자원을 놓고 경쟁할 때 검투사처럼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합니다.(112)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혁슬리의 1888년 에세이에서 검투사 언급이 혁슬리에 대한 은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는 자신의 메모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17)

왜 증거가 아닌 단순한 주장에 근거한 글, 그리고 그 주요 은유가 근거 없음을 인정받은 글에 대해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듀가킨은 크로포트 킨이 아니라 혁슬리가 옳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혁슬리의 증거 부족은 지나가면서 간단히 언급되는 반면, 크로포트 킨이 제시한 방대한 증거는 “자주 끝이 없고 획설 수설하는 단락에서 상호부조로 본 것에 대한 긴 일련의 예를 들어놓는” “목록식으로 나열된 예들”처럼 일축됩니다.(28) 또한 “크로포트 킨은 뛰어난 자연주의자였으며, 그의 시베리아 관찰 결과 다수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28)라는 사실도 인정되지만, 이는 크로포트 킨의 “관찰이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열정적인 정치적 의견에 의해 채색되었다”(35)는 점에서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현재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아이디어를 가진 과학자들은 그 의견이 언급되는 반면, 그들의 논평이 현재 체제의 전제를 반영할 경우에는 별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크로포트 킨과 알리(퀘이커교도이자 평화주의자)의 정치적 견해는 비교적 자세히다루어져, 이들이 과학적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상을 주지만, 보다 전통적인 관점을 가진 다른 과학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혁슬리의 증거 없는 추측은 별다른 비판 없이 넘어가지만, 해밀턴은 (147) “정치 적 올바름이… 난폭해졌다”라고 느꼈으며, 여성의

수학적 능력에 대해 성차별적 견해를 가졌고 (이에 대해 두가킨의 해명은 실로 우울합니다), 때로는 “우생학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기에 대한 유아 살해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기도 한다.”(94) 라고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치적이라고 간주되지 않으며 그의 과학을 왜곡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해보면, 혁슬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태도가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수집한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수집할지) 등 연구 방향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의 말을 떠올려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과학 자체가 객관적 사업이라는 신화를 비판하는 것이 옳으며, 과학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제약을 벗어던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에만 과학이 제대로 수행된다… 과학자들이 삶의 만연한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 자신의 계층이나 문화를 명시적으로 옹호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백한 사실을 인식하면 과학은 “순수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의 작업 아니라 사회적 현상, 대담한 인간의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사람이 해야 하므로 “사회에 내재된 활동”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조차도 “순수하고 깨끗한 정보”가 아니라, “문화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는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이론은 사실에서 불가피하게도 출된 귀납이 아니라, 가장 창의적인 이론들은 종종 사실 위에 덧씌워진 상상력 풍부한 비전이며, 상상력의 원천 역시 강하게 문화적이다.” 과학은 “그호기심 어린 변증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주변 문화에 내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그것을 지탱하는 전제를 의심하고 심지어 뒤집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 내재한 문화적 전제를 규명하고, 만약 다른 주장이 적용된다면 어떤 해답이 도출될 수 있을지 질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과학자들은 놀란 동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 진 절차에 직면하도록 만드는 창의적인 이론을 제안할 수 있다.”²

이 내용은 두가킨이 그의 책에서 서술한 역사에 해당합니다. 그는 크로포트킨에 관한 장에서 다니엘 P. 토데스 (Daniel P. Todes)의 『Darwin Without Malthus』를 올바르게 인용하지만, 토데스가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이 러시아의 지식인 및 과학계에서 환영받았던 반면, 다윈의 맬서스주의적 가정은 그가 속한 사회와 “자신의 계급, 서클, 가족의 이념적 관점을 공유했다는 당연한 사실”的 산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관점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기에, 만약 독자가 이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저자의 이념적 선입견을 부르주아적, 맬서스주의적, 또는 어쩌면 전형적인 영국식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³ 반면 두가킨은 “맬서스주의 교리가 왜 영국에서 빠르게 널리 받아들여졌는지”(20)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며, 이것이 지배 계급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노동 계급의 관점은 다르면서도 별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해밀턴의 작품에 결함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해밀턴 작품의 겉보기 “비정치적” 성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크로포트킨의 정치적 입장은 그가 더 많이 이의문을 제기하고 더 넓은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더 큰 통찰력을 제공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크로포트킨과 관련하여 독자들에게 흔히 쓰이는 “장밋빛 안경”이라는 비유를 적용하는 것은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놓친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두가킨은 혁슬리가 인류가 “자원보다 더 빨리 번식한다”(18)는 맬서스적 개념을 어떻게 언급했는지, 그리고 “빠른 번식이 자원이 부족할 때 모든 이에 대한 흡수적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이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그의 확신이 그를 도덕성에 대한 지침을 찾기 위해 진화론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회상합니다.(21) 혁슬리 자신은 맬서스의 “결론은 결코 반증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반증되지 않을 것이다”(21)라고 인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맬서스가 다윈의 사상에 미친 영향도 언급되지만, 이후 몇 년간 이러한 주장들이 반박되었다는 어색한 사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두가킨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 크로포트킨은 이 책에 인용된 글 (31)에서 이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과학적 지식을 소유하고 생계 수단과 편의 수단의 인공적 생산을 위해 협력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법칙은 맬서스의 법칙과는 정반대이다. 생계 수단과 편의 수단의 축적은 인구 증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⁴

이는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맬서스가 악명 높은 저서를 썼을 때 인구가 8 억 명이었고, 지금은 거의 80 억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기근은 발생하지만, 이는 생산 부족 (정반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내의 분배의 왜곡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두가킨이 혁슬리의 주장이 (계급) 편견이 아님 다른

² The Mismeasure of Man (Penguin, 1981), 21-3.

³ Daniel P. Todes, Darwin Without Malthus: The Struggle for Existence in Russian Evolutionary Thought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13.

⁴ “The Scientific Basis of Anarchy”. The Nineteenth Century (February 1887), 246. 이 기사는 이에 상응하는 기사인 “The Coming Anarchy”(The Nineteenth Century, August 1887) 와 함께 나중에 개정되어 팜플렛 pamphlet Anarchist Communism: Its Basis and Principles (1891)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것에 근거한 것처럼 혁슬리를 인용하기보다는 이를 인정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크로포트킨의 정치는 그에게 명백한 것, 즉 “비정치적” 인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크로포트킨의 과학적 신임이 그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의심받는 반면, 그의 정치적 입장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정부주의자로서 크로포트킨은 “국가가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일, 즉 소규모 집단으로 살며 혈연에 얹매이지 않고 서로 돕는 것을 방해한다고 믿었다”고 전해집니다.(31) 하지만 크로포트킨은 적절한 규모의 집단 연합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구상했으며, 소규모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집단은 작을 수 있지만, 모든 집단이 반드시 시작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모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정부를 가진 현대 국가만이 인간에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는 주장(32)은 기껏해야 불완전한 설명에 불과합니다. 사회주의자인 크로포트킨은 사유재산과 그로 인한 불평등 또한 인간에게 위험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크로포트킨은 현대 국가와 자본주의가 서로 얹혀 있음을 강조하며, 둘 다 반대했습니다. (소수에게 집중된) 정치적 권력을 없애고 동시에 (소수에게 집중된) 경제적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가 킨은 “사회주의 이전 무정부주의”(13)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게 무엇이든 말입니다.

“이타주의 방정식” 자체는 어떨까요? 해밀턴의 규칙은 “자연선택은 $r \times b > c$ 일 때마다 이타주의 유전자를 선호한다”(95)⁵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타주의 비용 (c)은 해당 유전자를 보유할 확률 (r)이 낮은 혈족이 얻는 혜택 (b)과 균형을 이룹니다. 두가 킨은 “해밀턴의 규칙에서 b 와 c 항의 영향이 매우 중요 할 수 있음을 불구하고 불구하고 간과되었다”(148) 고지적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혜택과 비용이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고, 따라서 인간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는 인류를 ‘유전자 수준’에서 분석한 논의 (127-9)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논의는 사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유전적 결론보다 확실히 더 크다는 점을 드러내어, 유전자 수준 분석 자체의 한계를 우연히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 과학적 선택이 얼마나 일관되게 더 광범위한 사회적 요인을 반영하는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r 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계산될 수 있지만, 비용과 편의에 대해 수치적 값을 할당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두가 킨은 친족 관계에서 ‘이타주의’의 뿌리를 찾고자 하지만, 동시에 죄수의 딜레마와 그것이 비혈연 동물의 협동적 행동의 진화를 설명하는 수단으로서 “이에는이 (tit-for-tat)”라는 개념으로 이어진 과정을 논의합니다. (143-5) 그러나 그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개체들이 “이에는이” 유전자를 공유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그 유전자의 “형제자매”라고 제안합니다. 유전자는 “다른 … 개체에 있는 자신의 사본을 도울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일종의 친척”인 셉입니다.(146)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인간이고 양이든 개와는 90% 이상의 유전자를, 침팬지와는 98~99%의 유전자를 공유하며, 두 인간은 유전적으로 99.9% 유사하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약화시킵니다. 자손의 관점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50% 씩 DNA를 물려받지만, 그 두 세트의 유전자는 거의 동일 하며 비혈연인들 사이에서도 유사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에는이”가 협동 (또는 이타주의)을 위한 “이기적인” 유전자가 복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에는이”가 효과를 발휘한다면, 친족 관계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유전자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이타주의가 수수께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관련 유전자는 이타주의 적개인의 비용과 관계없이 복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전자 수준의 관점은 그것이 반대하기 위해 등장했던 “집단 선택”과 유사한 결론에도 달하는데, 즉 개별 동물이다른 동물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⁵

“이에는이 (tit-for-tat)”(또는 로버트 트리버스의 용어를 사용하면 “호혜적 이타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개인들이 협력 하되, 타인을 이용해 먹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크로포트킨은 상호 원조가 상호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 협조적인 동물은 “적, 혹은 그보다 더 나쁜 대상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 사회적 본능이 계속 존재하더라도 … 자연선택은 이를 지속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연대의 실천이 포식적 성향을 지닌 개체의 발달보다 종전체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가장 교활하고 가장 영리한 개체들은 사회적 삶과 상호 지원의 이점을 이해하는 개체들을 위해 제거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본능과 공정성 감각의 진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게다가, 사회 생활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감정, 특히 집단적 정의감이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는 한 완전히 불가능 할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모든 개체가 자신의 이점을 끊임 없이 남용하고, 다른 이들

⁵ 크로포트킨은 집단 선택주의자 (“종에 유익하다”)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그는 협력이 관련된 개별 동물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즉, 그는 집단이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동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들에게 이익을 준다는 ‘상향식 (bottom-up)’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다른 사람을 돋는 것”이 아니라 상호 부조 (역자주: 서로 돋는 것)입니다.

이 피해자에게 개입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회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감은 어느 정도 모든 사교적 동물에게서 발달합니다.”

“크로포트킨이” 같은 종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행동은 이타주의를 구성한다”고 생각한 것은 여기서 끝납니다.(28) 그는 다른 사람을 착취하려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협력을 강제해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뉴가킨이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묘사한 것과는 거의 맞지 않지만, ‘이에는 이’의 핵심 측면, 즉 협력적 행동은 보상을 받고 이기적 행동은 처벌 받는다는 점을 선행하고 예측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적 상호 작용) 사회적 생활에서 협력이 확산될 것입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흡스주의적인 집단은 애초에 존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금방 멸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혁슬리와 마찬가지로, 뉴가킨 역시 인간이 어떻게 본성을 극복하고 비혈연 집단 내에서 협력을 실천하며 윤리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방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크로포트킨이 조롱했듯, 혁슬리의 주장은 마치 신의 불꽃이 존재하며, 자연선택이 동물과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⁶ 상호 부조는 반드시 “좋은”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냥에서 늑대의 협력은 그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먹이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리 동물의 상호 부조는 그들에게 이익을 주지만, 사냥꾼은 배고프게 됩니다). 이러한 협력을 유도하는 것은 이타주의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의) 가 아니라,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이 협력이 공정성과 정의의 감을 낳고, 나아가 공감과 이타주의를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생존의 필요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윤리의 진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혁슬리가 아닌 크로포트킨이 진정한 선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뉴가킨은 “혁슬리와는 달리” “가족 구성원 간의 이타주의”가 “인간 도덕 성의 기초 중 하나”(117)라고 주장하는데, 잠시만 생각해 보면 가족을 돋는 것이 때로는 도덕성과 충돌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고주의가나 뿐만 아니라 여겨지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친족 관계의 영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심지어 이타주의)이라는 것은 친족 관계의 범위를 최대한 확장해도 그보다 훨씬 더 넓게 실천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친족 관계에 한정하면 일부 측면은 설명 할 수 있으나, 뉴가킨의 책이 보여주듯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유아를 구하기 위해 강에 뛰어드는 예 (73)가 제시되는데, 이는 종종 누군가가 두 자녀, 여덟 명의 사촌 등을 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요약됩니다. 『무정부 상태의 과학적 기초』에 대한 동반 기사에서 크로포트킨은 “강속의 아이” 사고 실험을 활용하여, 무정부주의자의 윤리에 대한 견해 (그가 “평범한 사람”이 견지한다고 제안하는) 를 “종교적 도덕주의자”와 “공리주의자”의 견해와 대조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는 계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기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고통 받으면 깊이 고통 받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의 두 번째 천성입니다.”⁷

우리는 그가 만약 아이와 공유하는 유전자의 비율을 계산한 후, 그 비율이 자신들이 신경 쓸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때에만 뛰어드는 ‘유전학자’를 추가했다면 얼마나 즐거웠을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전적 관련 성 계산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예시가 사용되고 그에 따른 인상이 전달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뉴가킨은 자신의 책에서 친족 관계가 이타주의와 단순 협력의 발생에 미치는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층적, 자본주의적 체제에서 만들어진 문화적 전제와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은 거의 의문시되지 않거나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뉴가킨은 “흡스적 추측”과 가족 및 부족의 본질에 관한 크로포트킨의 논평을 오해한 듯 합니다 (30). 현대 인류학이 “사냥채집 사회, 집단, 마을은 종종 대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30) 고결론내린 것은 크로포트킨이 주장한 요점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가 밝힌 바와 같이, “동물학과 고인류학은 가족이 아니라 무리가 가장 초기의 사회 생활 형태였다는 데 동의한다.” 이는 실제로 대가족 일 수도 있으나, 확실히 흡스와 혁슬리가 인류의 기원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으로 거슬러 투사한즉, 중세 이후의 가족과는 전혀 다릅니다. 크로포트킨이 지나가는 말로 언급했듯이, 그는 “현대적 의미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뉴가킨은 대가족으로 간주되는 부족 조차도 흡스가 제시한 “자연 상태”에 관한 허구와 크게 상충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이나 인간의 행동에 대한 유전적 설명을 찾는 것은 종종 “그저 그런 이야기” 이상의 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는 그가 과학자가 유충이 어떻게 끔찍한 맛을 진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추측을 설명할 때

⁶ Peter Kropotkin, “Justice and Morality”, Black Flag Anarchist Review Vol. 3 No. 3 (Autumn 2023).

⁷ “The Coming Anarchy”. The Nineteenth Century (August 1887), 163.

제시한가장기괴한예 (79-80) 에서잘드러납니다. 이것은어떻게든” 이타주의”(친족관계에기반) 와관련이 있는데, 먹히는유충은” 형제자매와관련되어있기때문에유전적이점을얻는다” 고설명됩니다. 보통이타주의가이타주의자자신을희생시키고다른이에게이익을주는행위로정의되기때문에, 이것은그정의를터무니 없는수준까지확대한것입니다. 결국유충은포식자의입으로뛰어드는것이아니라우연히잡아먹히는것이며, 여기에는실제행위도, 실질적인의미에서의희생도없이그저운에의한것일뿐입니다. 이를” 이타주의” 와동일시하거나어떻게든친족관계에의해주도된다고주장하는것은, 주류과학의너무많은부분의문제점을보여줍니다 (특히현대사회의불쾌한측면을정당화하려고할때눈에띄게들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뒤가킨은” 이드라마 (헉슬리와크로포트킨) 의등장인물중한명도이타주의, 협동, 친족관계를조사하는실험을단한번도하지않았다” 고한탄합니다.(35) 예를들어, 실험은다양한동물 (주로영장류) 이공정성에대한감각을가지고있음을확인하는데도움을주었는데 (이는우연히도크로포트킨의주장을확증해주므로) 어느정도유용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 크로포트킨은분명그한계를인식했을것입니다:

” 실험실과박물관뿐만아니라, 숲과초원, 대초원과산에서동물을연구하자마자, 우리는다양한 종들사이에서, 특히여러동물집단내에서엄청난양의전쟁과박멸이일어나고있음을즉시인지하게된다. 동시에, 같은종또는적어도같은사회에속한동물들사이에서는상호지원, 상호부조, 상호방어가그만큼, 아니어쩌면그보다더많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 알파늑대 (alpha wolf)’ 신화는과학자들이포획된동물의행동을연구하면서잘못된정보를얻은대표적 인사례입니다. 이특정신화가지배적인문화의가부장적관점과맞닿아있다는사실은두말할필요도없습니다. 크로포트킨은헉슬리의인간에대한성찰에기반한주장과가정을배제하고, 자연에서의관찰에근거하여자신의주장을전개했기에전혀놀라지않았을것입니다.

진정으로객관적인과학은우리가자유롭고계급이없는사회에살기전까지는불가능할것이며, 그때까지세상에대한이해의진전은사회와가장관련이적은분야에서이루어질것이라는결론을내리는것은어렵지않습니다. 다윈의공헌을예로들며진전이없을것이라는말은아니지만, 쉽지않을것이며사회적불의를정당화하거나합리화하기위해 (악의적이든무분별하게든) 오용되는것에맞서싸워야할것입니다. 이러한상황에서크로포트킨이나굴드처럼사회적인식을가진과학자들의역할이중요합니다. 뒤가킨의책에서크로포트킨의정치가그를덜과학적으로만들었다고주장하기보다는문화적으로정의된가정에더많은의문을제기했다면의심할여지없이더큰도움이되었을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크로포트킨이자신이중요하고회기적인공헌을한주제에관한책에서이렇게눈에띄게자리매김한것을보는것은반가운일입니다. 그러나안타깝게도그의사상에대한설명은부족한점이많고, 친족관계에집착하는태도역시가치있는주제에대해잘쓰여진작품의가치를훼손하고있습니다. 참고로, 뒤가킨은 그의짧은저서 『진화의왕자: 피터크로포트킨의과학과정치에대한모험 The Prince of Evolution: Peter Kropotkin's Adventures in Science and Politics』 (2011) 에서크로포트킨에관한내용을다시다루었으며, 이책과다양한저널기사에서해당챕터를확장했습니다. 또한그는여러유용한링크가포함된크로포트킨 관련섹션이있는웹페이지지도운영했는데, (안타깝게도지금은사라졌으나인터넷아카이브를통해찾을수있습니다.) 이처럼그의관심은진정성이있었고, 그렇지않았다면크로포트킨을접하지못했을많은사람들이크로포트킨을접할수있도록했습니다. 이책이크로포트킨의사상을다룬부분에결함이많다는점은매우안타깝습니다.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이안맥케이
리뷰: 이타주의방정식
August 15, 2024

원문: <https://anarchism.pageabode.com/review-the-altruism-equation/>, 아카이브:
<https://web.archive.org/web/20250211190028/https://anarchism.pageabode.com/review-the-altruism-equation/>

kr.theanarchistlibrary.org